KiRi 리포트 2019.2.11.
이슈 분석

최근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증가 원인 분석

조영현 연구위원

요약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대출의 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보험회사들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대출비중이 높아진 배경은 대출채권의 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고 연체율도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 3년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대폭 확대한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신용위험액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거래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대출의 비중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가계대출 비중이 다소 줄고 있으나 기업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9월 말 기준 운용자산 중 대출 비중이 21.9%를 기록함
  - 가계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보험업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1]의 영향으로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보험회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2]를 2018년 9월 말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DSR을 관리지표[3]로 도입할 예정이어서 가계대출 비중은 더 줄어들 여지가 있음
- 최근 3년간 손해보험회사는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확대하며 2018년 9월 말 기준 운용자산 중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1.9%에 이름

1) 금융당국은 2018년에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담보 인정비율(LTV) 60% 초과, 만기 시 원금상환 10% 미만)의 위험계수를 2.8%에서 5.6%로, 신용대출 위험계수를 4.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주의 담보능력 이외에 상환능력도 감안하여 기업대출 리스크를 평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1. 22)
2)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제도로, 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함
3) 가계대출 취급액 중 DSR이 높은 대출의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2019년 상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9. 28)

〈표 1〉 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대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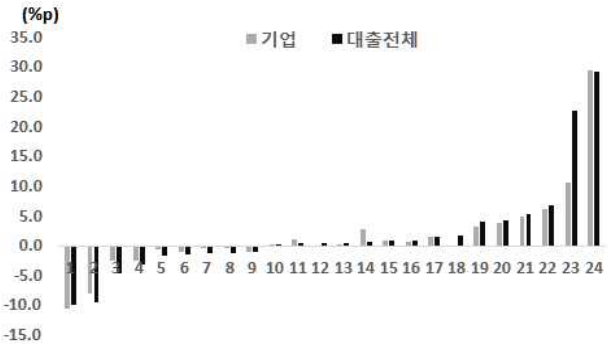
구분		2015. 9	2016. 9	2017. 9	2018. 9
생명보험회사	가계대출	12.6	12.4	12.4	12.3
	중소기업대출	4.4	4.7	5.3	5.6
	대기업대출	2.8	3.0	3.2	3.8
	대출전체	19.8	20.1	21.0	21.9
손해보험회사	가계대출	15.4	15.6	16.0	16.5
	중소기업대출	8.1	9.5	10.2	10.5
	대기업대출	5.1	5.1	4.6	5.0
	대출전체	28.5	30.1	30.8	31.9

주: 손해보험회사는 11개 국내일반손해보험회사임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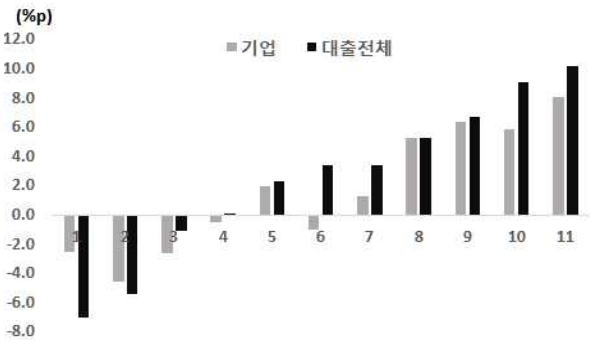
회사별로 보면 최근 3년 동안 일부 보험회사들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비중을 대폭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운용자산 중 대출비중을 20%p 이상 확대한 회사가 2개가 있는 반면, 그 비중을 9%p 이상 축소한 회사도 2개가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개사가 최근 3년간 대출비중을 9%p 이상 확대한 반면, 2개사는 5%p 이상 축소함

〈그림 1〉 생명보험회사 대출비중 변화분



〈그림 2〉 손해보험회사 대출비중 변화분



주: 2015년 9월 말 대비 2018년 9월 말 운용자산 중 대출비중의 변화분임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이러한 대출 확대의 배경은 다른 자산에 비해 대출채권의 수익률이 높고 연체율 관리도 적절하게 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특히, 대출을 크게 확대한 생명보험회사들은 2017년에 다른 자산대비 평균 2.09%의 초과수익률[4]을 기록함
-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대출비중 변화분이 2%p 이상인 회사들의 연체율은 0.07%이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0.19%에 불과함

〈표 2〉 보험회사의 일반대출 초과수익률

(단위: 개, %p, %)

구분	대출비중 변화분	회사 수	2015년 일반대출의 초과수익률	2017년 일반대출의 초과수익률	연체율
생명보험회사	-9.9%p ~ -0.1%p	9	1.94	1.56	0.40
	0.0%p ~ 1.9%p	8	1.29	1.09	0.59
	2.0%p ~ 30%p	5	1.04	2.09	0.07
손해보험회사	-9.9%p ~ -0.1%p	3	0.10	0.55	1.35
	0.0%p ~ 1.9%p	1	-0.72	-0.79	1.13
	2.0%p ~ 30%p	6	-0.11	0.11	0.19

주: 1) 2015년 9월 말 대비 2018년 9월 말 운용자산 중 대출비중의 변화분임
2)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일반대출의 다른 자산대비 초과수익률로써 일부 회사는 추정하지 못함
3) 교보라이프플래닛, IBK연금보험, 더케이손해보험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각 사 경영공시를 바탕으로 추정

■ 그러나 대출을 대폭 확대한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신용위험액 비중은 크게 상승함

- 대출비중이 확대된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일반대출의 신용위험계수가 상향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신용위험액에서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2년간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각각 7.42%p, 5.90%p 상승함

4)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일반대출의 다른 자산대비 초과수익률로써 자세한 추정방법은 다음 보고서를 참조하였음; 조영현·황인창·이혜은(2018),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표 3〉 보험회사의 대출비중 변화분별 신용위험 특징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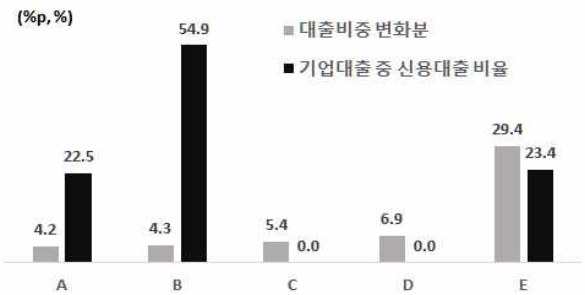
구분	대출비중 변화분	2015년 일반대출 신용위험계수	2017년 일반대출 신용위험계수	변화분	2015년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액 비중	2017년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액 비중	변화분
생명보험회사	-9.9%p ~ -0.1%p	4.29	5.73	1.44	25.29	23.22	-2.07
	0.0%p ~ 1.9%p	3.61	1.77	-1.85	9.60	11.94	2.34
	2.0%p ~ 30%p	3.81	4.23	0.42	17.34	24.76	7.42
손해보험회사	-9.9%p ~ -0.1%p	3.73	3.98	0.24	31.78	26.05	-5.73
	0.0%p ~ 1.9%p	2.79	2.42	-0.37	46.99	37.51	-9.48
	2.0%p ~ 30%p	3.80	4.17	0.37	29.41	35.31	5.90

주: 1) 2015년 9월 말 대비 2018년 9월 말 운용자산 중 대출비중의 변화분임
2) RBC비율과 대출채권 연체율은 2018년 9월 말 기준임
3) 교보라이프플래닛, IBK연금보험, 더케이손해보험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사 경영공시를 바탕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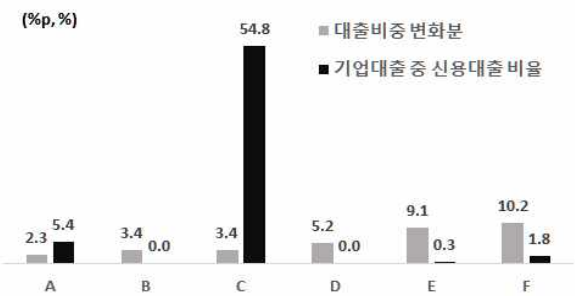
대출을 대폭 확대한 보험회사들 중 특히, 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거래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음

-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대폭 확대한 보험회사들 중 4개사는 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20%를 상회함
- 이러한 보험회사들은 경기 악화에 대비하여 거래기업의 사업현황, 실적 및 신용등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음 KiRi

〈그림 3〉 생명보험회사 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율



〈그림 4〉 손해보험회사 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율



주: 1) 2015년 9월 말 대비 2018년 9월 말 운용자산 중 대출비중의 변화분임
2) 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율은 2018년 9월 말 기준임
3) 교보라이프플래닛, IBK연금보험, 더케이손해보험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